

「NHI-Live」발간 기사 목록

vol.43

구성	주요내용
NHI News(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에 한국 인사혁신사례 전수로 행정한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담당 중간관리자급 공무원 29명, 2주간 인사역량 강화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적이면서 몰입도 높은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학습모델 기획·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8기 강의역량향상과정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 디지털 역량 온라인 학습공간, 첫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40여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손쉽게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데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급 새내기 공무원교육, 가상공간에서 첫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천년세대 흥미 유발, 교육 몰입도 높이기 위해 확장가상세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급 공무원 합격자 315명, 사무관시보로 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6기 신임관리자과정(공채)' 실시간 온라인 수료식 개최
NHI Plus+(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른 별 지구를 지키기 위한 노력, 탈 플라스틱
기 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를 더 스마트하게 해주는 Self 인재개발 퀴즈

인도네시아에 한국 인사혁신사례 전수로 행정한류 확산

— 인사담당 중간관리자급 공무원 29명, 2주간 인사역량 강화 교육 실시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인도네시아 인사 담당 중간관리자급 공무원 29명을 대상으로 7월 5일부터 16일까지 '인사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본 교육과정은 '인도네시아 행정인력관리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공무원 인사 주무부처인 행정개혁부의 요청으로 2020년에 개설되어, 올해는 채용, 경력개발, 성과관리 등 인사행정 주요 분야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심화과정으로 운영되었다.

교육 참여자들은 한국 인사행정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전년도에 수립한 분야별 개선안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한국 인사담당 공무원들과 실제 사례에 대한 대화,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노비안티(Ms. Novi Yanti) 역량개발 분석관(국무비서부)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인사제도와 규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혁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방문해서 실제 정책현장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밝혔다.



혁신적이면서 몰입도 높은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학습모델 기획·운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최창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공무원 교육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기관 최초로 지난 1월부터 온라인 공개강좌 「On세상 지식 탐구생활, 안녕! 가치 들어요」를 정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집합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며, 나라배움터를 통한 국정시책, 직무공통, 인문소양 분야의 이러닝 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이러닝 콘텐츠를 '보다 많이', '보다 빠르게' 제작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온세상 지식탐구 생활 안녕 가치들어요' 주요 장면】



1회 적극행정
(‘돌아온 순희’ 연극공연)



2회 마음건강&소통
(박수영 교수)



3회 글쓰기&말하기
(강원국 작가)



4회 다양성&대인관계
(김경일 교수)



5회 디지털 리터러시
&대국민 소통 (황보현 CCO)



6회 호국&부모
(서경덕 교수)

또한, 학습 흥미와 동기유발이 어렵고 학습몰입과 학습자간 상호작용이 부족하다는 기존 전달형 이러닝 학습의 한계도 극복해야 할 과제였다.

이에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자체 제작 방식으로 학습 참여도, 현장감·몰입감이 높은 개방형 온라인 학습 모델인 「On세상 지식 탐구생활, 안녕! 가치 들어요」를 기획, 운영했다.

명사특강·토크쇼·연극 등 다채로운 형식과 세련된 무대구성으로 몰입도를 더욱 높였으며, 실시간 댓글로 소감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 학습 참여자간 소통도 가능하다.

콘텐츠 제작비용을 기존 제작방식 대비 약75% 절감했고 제작기간도 1/3이상 단축하는 유의미한 효과와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동시접속인원 2천명, 조회수 2만회, 만족도 평균 90점 이상을 기록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모든 영역에서 대면교육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국가인재원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다양한 온라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각 기관·영역별 상시적 일터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외에 공공기관 직원 및 일반 국민에게까지 학습대상을 확대하였다.

공개강좌의 주요 주제는 사전수요 조사와 시의성 등을 고려해 정부시책, 인문소양 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유튜브 인재키움tv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된다. 생중계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라배움터를 통해 다시 들을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매일 ‘일잘러의 글쓰기&말하기’, ‘다양성 & 대인관계’, ‘디지털리터러시 & 對국민 소통’ 등의 주제로 강원국 前 연설비서관, 아주대 김경일 교수, 황보현 CCO 등 유명 강사의 명 강의와 교육부·농림부가 협업한 ‘학생가정 농산물꾸러미 사업’ 추진과정을 극적으로 풀어낸 ‘돌아온 순희’ 연극 공연 등 기존 공무원 교육에서 볼 수 없었던 색다른 강좌를 운영하였다.

【돌아온 순희 연극 주요 장면 등】



▶ [실시간 공개강좌 + 이러닝] 'On세상 지식 탐구생활, 안녕! 가치 들어요'

- 정부·공공 채널이면서 평일 낮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강좌에 대한 폭발적인 참여 열기

: 유튜브 생중계 동시접속인원(1~2천명), 최종 조회수(2만명), 평균 90점 이상의 만족도 달성

: 5월 강좌의 유튜브 실시간 참여순위, 국내 유튜브 교육 채널 중 전체 19위(공공채널 중 1위)

* (조00) 이런 발상은 어찌 하신건지 틀에 박힌 교육이 아닌 이렇게 시대의 변화를 같이 느낄 수 있는 교육은 실생활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On세상 지식 탐구생활, 안녕! 가치 들어요”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유튜브 인재키움TV를 통해 모든 공무원이 같이 들을 수 있는 가치있는 특별한 시간을 계속해서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제48기 강의역량향상과정 개최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는 각급 교육기관 교수요원 및 전문강의 희망자를 대상으로 「제48기 강의역량향상과정」을 3일간*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 * 7.20. (화) ~ 7.22. (목)
- 강의역량향상과정은 각급 교육 기관 교수요원 강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기획된 과정이며
 - ‘스피치·보이스 연출법’, ‘디지털 퍼실리테이션 기법 및 비대면 교수법’, ‘강의 교안 클리닉’ 등 강의 스킬 함양에 도움이 되는 교과목 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 교육 과정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온라인 분임 토의 기능 등을 활용하여 교육생 참여를 높이고 전문 강사의 피드백을 강화하였다.
- 앞으로도 국가인재원은 공공 HRD의 중추 기관으로서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들의 강의 역량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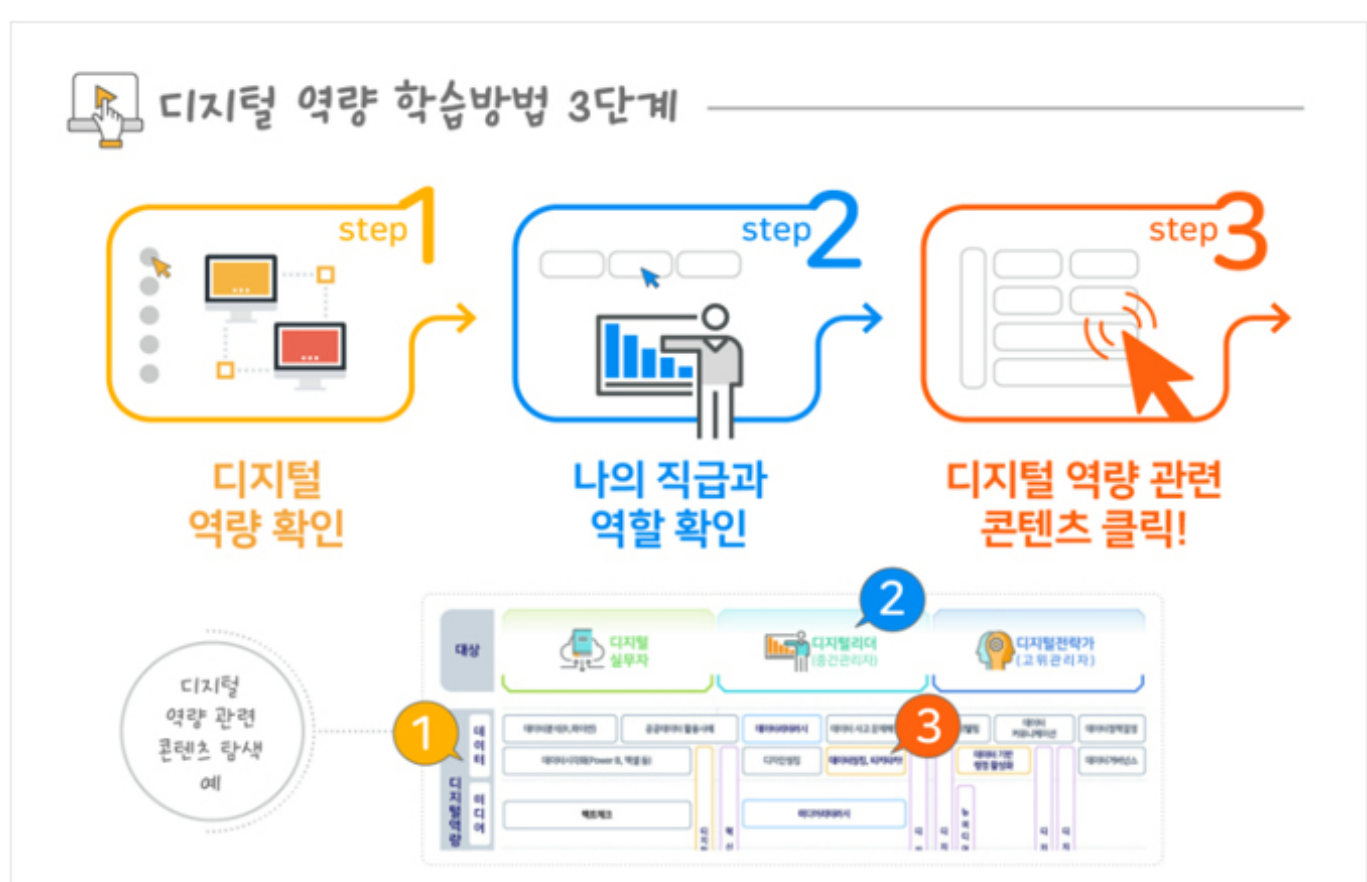


공직자 디지털 역량 온라인 학습공간, 첫 마련

640여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손쉽게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데미 운영

공직자의 디지털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640여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공간이 처음 마련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최창원, 이하 국가인재원)은 공무원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학습 서비스 '디지털 아카데미'를 '나라배움터(<http://e-learning.nhi.go.kr>)'에서 12일부터 제공했다.



'디지털 아카데미'는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혁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공직자 스스로 디지털·데이터 사고력 및 활용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공직자라면 누구나 나라배움터 내 '디지털 교육원(아카데미)'을 통해 디지털 역량 교육 콘텐츠를 한 곳에서 손쉽게 학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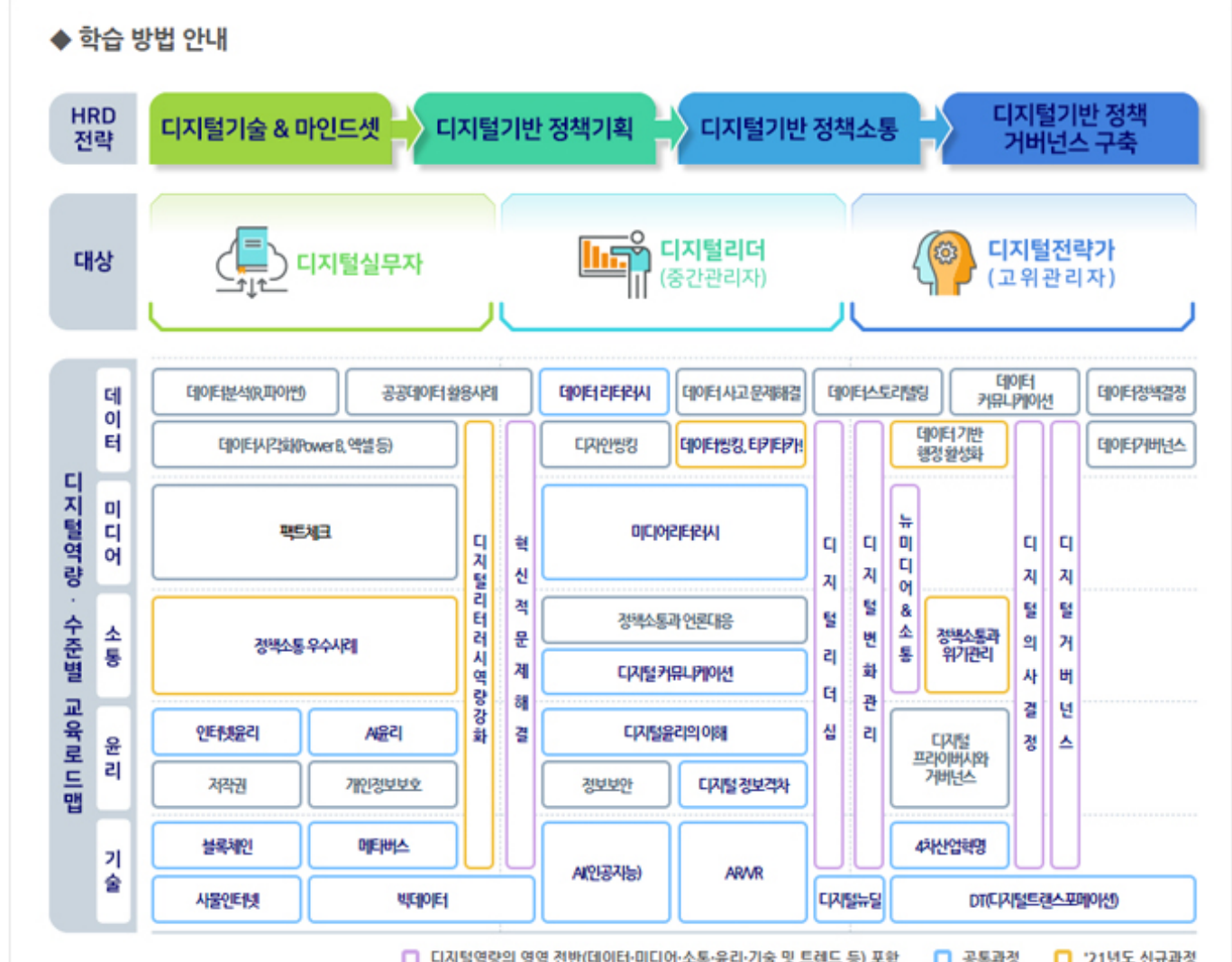
일선 업무환경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역량을 정의하고, 학습 영역을 범주화하여 공직 특화형 디지털 교육 체계를 구성했다.

디지털 역량을 데이터 문해력, 미디어 문해력, 디지털 소통, 디지털 윤리, 디지털 흐름 및 기술 등 5개의 큰 범주로 구분했다.

디지털 역량 개발을 위한 목적, 업무 등에 따라 디지털 기술과 생각(마인드) 제고, 디지털 기반 정책기획, 정책 결정, 정책 거버넌스체계 구축 등으로 나눠 학습할 수 있다.

실무자, 관리자(리더), 전략가(고위직) 등 직급이나 직위에 맞게 구성된 맞춤형 교육 가이드도 제공된다.

【'디지털 아카데미' 디지털 역량 교육체계】



이를 위해 국가인재원은 공공·민간 등 다양한 영역에 산재한 디지털 역량 교육 콘텐츠를 수집·엄선하고, 행정안전부,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54개 기관과 협업하여 약 640여개 콘텐츠를 확보했다.

【'디지털 아카데미' 역량별 학습화면】



확보된 학습 콘텐츠는 교육 체계에 맞게 배치해 필요한 학습 영역과 역량 수준 등 학습자 개인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들이 디지털 역량을 심화,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통계교육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전문 교육기관의 디지털 관련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바로가기' 기능을 통해 접근성을 높였다.

또 '학습자가 추천하는 새로운 콘텐츠' 코너를 통해 개개인이 알고 있는 유익한 교육 자료를 수시로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습자 간 소통과 동료 학습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번호	기관명	교육과정명	바로가기
1	통계교육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과정	바로가기
2	통계교육원	데이터 에디팅	바로가기
3	통계교육원	R 고급 통계분석	바로가기
4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빅데이터 아카데미 종합안내	바로가기
5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빅데이터 기획 전문가	바로가기

학습자가 추천하는 새로운 콘텐츠

김은희 - 2021.08.12
 "5만8000개 공공데이터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관담당자들이 알려드리는 공공데이터 설명회(1차) - 2021.08.10. 진행된 핫한 콘텐츠 ^^ <https://www.youtube.com/watch?v=aZEFhMNOUOA>

이지건 - 2021.08.12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1부 - 정보를 읽는 능력을 키워라! / EBSCulture (EBS 교양) / https://www.youtube.com/watch?v=i_cPF7_Nzrw

강수연 - 2021.08.11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2부 - 디지털 시민, 역할을 길러라! / EBSCulture (EBS 교양) / <https://youtu.be/iSkheUHBdQY>

최창원 국가인재원장은 "모든 공무원이 시·공간 제약 없이 디지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이 최초로 마련된 데에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 공직자들이 디지털 전환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5급 새내기 공무원교육, 가상공간에서 첫 시행

— 새천년세대 흥미 유발, 교육 몰입도 높이기 위해 확장가상세계 활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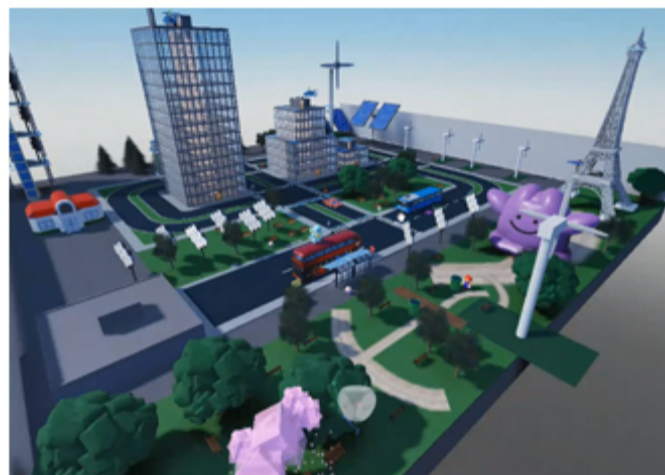


[그림 1: 메타버스 활용한 교육장 전경]

5급 새내기 공무원 교육과정에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정책 교육을 처음으로 시행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최창원, 이하 '국가인재원')은 예비사무관 대상 '제66기 신입관리자 과정'에서 '미래예측기반 공공의사결정' 과목을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해 교육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되는 신입관리자공채과정은 예비사무관들이 현업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사례들을 활용해 현장·실무 중심으로 정책교육을 하고 있다. 이번 '미래예측기반 공공의사결정' 과목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급변하는 미래 환경의 다양한 상황을 예측해 정책을 수립하는 전략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새천년(MZ)세대인 교육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확장가상 세계(메타버스)를 활용했다.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기존의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보다 진보된 개념으로, 개인을 표현하는 아바타(avatar)들이 놀이와 업무, 소비 등 인터넷상에서 각종 활동을 하는 체계(플랫폼)로 비대면 시대 속 새로운 소통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2: 스마트 도시 구현 현황]

먼저 예비사무관들은 게임을 통해 확장가상세계에 숨겨진 기후변화, 저출산·초고령화 등 핵심어(키워드) 문제를 찾은 뒤 미래 사회문제를 예측했다. 이어 예측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설계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보통신 등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모형(모델)

세부적으로 2030 기후변화, 초고령화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스마트도시의 목표와 기능을 팀별로 수립해 설립전략과 정책수단 등을 서로 논의하고, 도시 기획안도 공유했다.

교육에 참여한 예비사무관 ㄱ 씨는 "아바타를 이용해 정책을 논의하니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게 된 것 같다"며 "이러한 과목이 많이 편성돼 실감나게 배우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의를 진행한 국가인재원 윤우제 교수는 "미래사회 대응이라는 추상적인 주제지만 교육생들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확장가상세계를 활용했다"며 "앞으로도 교육생들이 지닌 창의성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인재원 신규자교육과 박혜정 사무관은 "새천년(MZ)세대 교육에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확장가상세계 등의 활용은 앞으로 계속 중요해질 것"이라며 "교육생들의 몰입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적극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5급 공무원 합격자 315명, 사무관시보로 임용

— '제66기 신입관리자과정(공채)' 실시간 온라인 수료식 개최 —



2020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315명이 17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사무관시보로 임용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최창원, 이하 '국가인재원')은 9월 3일 '제66기 신입관리자과정(공채) 온라인 수료식'을 국가인재원 진천 본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과정은 코로나19로 17주간의 모든 교육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이날 수료식 역시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과정을 수료한 사무관시보 315명은 향후 1년간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무를 익히기 위한 수습 근무를 하고, 내년 9월 정규 임용될 예정이다. 교육생 ㄱ 씨는 "교육에서 다양한 토론·실습 등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신입사무관에게 필요한 정책역량을 배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5월 시작된 이번 과정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기본자세를 함양하고 정책기획 역량을 현업수준으로 배양하기 위해 현장 사례 및 실무 중심으로 운영됐다.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 대응을 위해 데이터(자료)분석 및 활용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신입관리자과정으로는 처음으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해 교육 몰입도를 높이기도 했다. 또 교육생들이 올바른 공직 자세를 확립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현장 사례를 활용한 참여형 교과 중심으로 공직 가치 교육도 개편했다. 현업에 투입되는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제 정책 담당자에게 생생한 경험과 비법도 배웠다. 아울러 정책 현안에 대한 쟁점 토론과 정책 보고서 작성, 고위공무원 출신 정책 학습 지도교수의 1:1 지도를 받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최창원 국가인재원장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30년을 이끌 공무원으로서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맞서 노력하고 창의력을 발휘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더 포용적인 초일류 국가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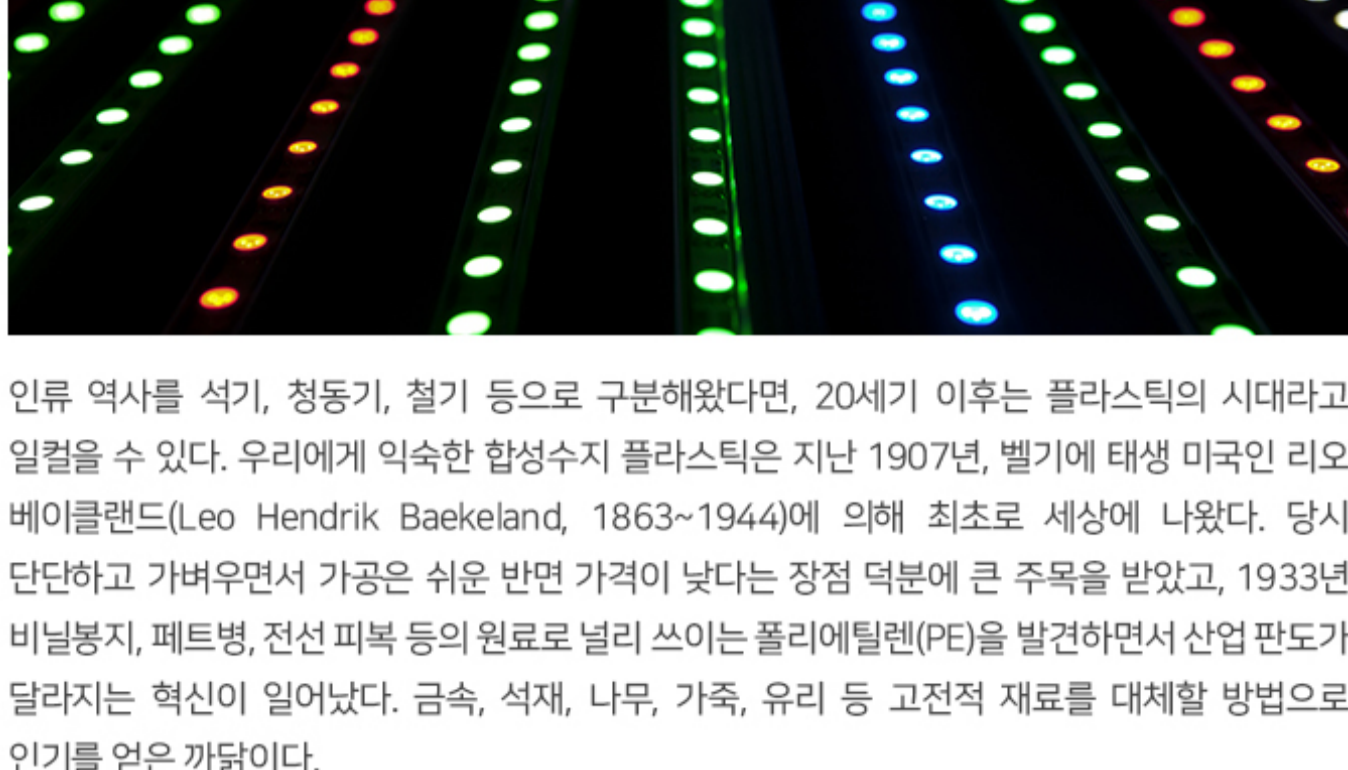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프로젝트

— 푸른 별 지구를 지키기 위한 노력, 탈(脫)플라스틱 —



생산은 5초, 이용엔 5분 그러나 분해엔 500년이 걸린다. 인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는 플라스틱의 특징이다. 매일 시 시 세기가 지나야 사라지며, 태우면 유해가스를 배출하고, 바다와 강으로 흘러들 땐 미세하게 쪼개져 해양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이 물질은 오랜 기간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손꼽혀 왔다. 물론, 친환경·무독성·생분해성을 지향하는 발명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결책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으로 인한 문제의 파급력이 크고 속도 또한 훨씬 빠르기에 결국 사용량을 줄여야 푸른 별 지구를 지킬 수 있다는 데는 전 세계 각국이 입을 모아 동의한다.

석기·청동기·철기에 뒤이은 플라스틱의 시대



인류 역사를 석기, 청동기, 철기 등으로 구분해왔다면, 20세기 이후는 플라스틱의 시대라고 일컬을 수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합성수지 플라스틱은 지난 1907년, 벨기에 태생 미국인 리오 베이클랜드(Leo Hendrik Baekeland, 1863~1944)에 의해 최초로 세상에 나왔다. 당시 단단하고 가벼우면서 가공은 쉬운 반면 가격이 낮다는 장점 덕분에 큰 주목을 받았고, 1933년 비닐봉지, 페트병, 전선 피복 등의 원료로 널리 쓰이는 폴리에틸렌(PE)을 발견하면서 산업 판도가 달라지는 혁신이 일어났다. 금속, 석재, 나무, 가죽, 유리 등 고전적 재료를 대체할 방법으로 인기를 얻은 까닭이다.

이어 20세기 후반엔 미국과 일본이 앞장서 가능성을 탑재해 강도는 더욱 높이는 한편, 전기가 통하거나 수백 °C의 고온을 견디도록 개발하면서 다양한 형태와 종류로 진화하는 길을 열었다. 오늘날 이 고분자 물질이 수십 나노미터 패턴 해상도를 가지는 반도체 소자, 얇고 화려한 색감의 LCD와 유기EL 디스플레이, 고성능 2차전지, 초극세사와 기능성 섬유, 자동차 내장재 등 첨단기술 영역까지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플라스틱의 적절한 대안 모색에 전 세계가 나선 이유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치 만능과 같았던 플라스틱의 결함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우선 석유나 석탄에서 추출하기에 유한하기 마련인 매장량이 점차 줄어들면 제조가 어려워진다. 또한, 생산 61%, 가공 30%, 영구폐기 시 9%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달리 말해, 플라스틱 사용 증가가 곧 천연자원 고갈과 대기오염에 일조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연적으로 썩지 않으니 사라지길 기대하기가 어렵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지난 1950~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누적 플라스틱 생산량은 83억t에 달하며, 그중 플라스틱 폐기물은 63억t에 이른다. 전체 가운데 75.9%가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해마다 평균 3억t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2050년 누적 폐기물은 총 330억t에 달할 전망이다.

그렇다고 연소를 택하긴 어렵다. 불태우는 과정에서 염산, 벤젠, 다이옥신 등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인 독성을 뿜어낸다. 만약 강과 바다에 버려진다면, 풍화 작용으로 잘게 쪼개져 떠돌다가 수중 생태계의 먹이 사슬을 붕괴하고, 종래엔 식수나 해산물을 통해서 인체에 침투해 각종 질병을 일으키며 우리 건강을 위협할 테다. 이미 세계자연기금(WWF)은 현대 사회에서 1인당 일주일간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신용카드 한 장 무게에 해당하는 5g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수치는 1개월 동안 이어질 때 칫솔 1개(21g), 10년이면 머리 구멍뿔 하나에 해당하는 2.5kg다. 게다가 지난 2018년 플라스틱 폐기물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엄격한 규제에 들어가면서 각국이 내놓은 쓰레기는 갈 곳이 없어졌다.

즉, 현존하는 78억 인구와 그 미래를 고려할 때, 드디어 지구상 모든 국가가 탈플라스틱에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안을 찾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셈이다.

해외의 탈플라스틱 정책 ① 순환 경제와 세금으로 돌파하는 유럽연합(EU)



그렇다면 해외에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먼저 유럽연합(EU)은 올해 7월 3일을 기점으로 식기류, 접시, 빨대 등 대체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했다. 또, 음료 컵과 물티슈, 위생용품 등은 성분 함유량과 유해 영향과 같은 정보가 담긴 라벨링을 부착했다. 한편 생산자 책임 강화 차원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식품 용기, 과자봉지, 페트병, 비닐봉지 등의 재활용·폐기 비용 일부를 제조기업이 부담할 예정이다.

여기에 올 2029년까지 페트병 분리수거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공병제를 시행하고, 포장재는 재활용 비용을 2025년 50%, 2030년 55% 등으로 서서히 상향하는 데 돌입한다. 결과적으로, 생산 → 소비 → 폐기를 관리 → 재활용으로 구성된 순환 경제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일회용 제품에 대한 시장 감독을 강화하고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을 촉진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 폐기물에 kg당 0.8유로를 부과하는 플라스틱 세를 시행했다. 따라서 각 회원국 정부는 자국 내 발생하는 연간 총량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양을 제한 후, 남은 폐기물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세수 확보 규모로 연간 약 60억 유로를 전망하고 있는데 상세한 사항은 국가마다 자율적으로 결정·시행할 계획이다.

해외의 탈플라스틱 정책 ② 최대 규모에서 최소량으로, 미국·중국



미국에서 하루에 소비한다는 플라스틱 빨대 5억 개는 길게 연결하면 지구를 두 바퀴 반이나 돌 수 있다. 이 같은 심각성에 동감한 정부는 주마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정책을 채택해 시행하도록 독려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2019년 1월 이후 패스트푸드점을 제외한 모든 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전면 금지했다.

또, 앞서 소개했던 과거 폐기물 수입에 적극적이었던 중국은 2021년 초에 가장 엄격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금지령에 들어갔다. 4대 직할시와 27개 성(省)·자치구 성과와 같은 우선 시행 도시는 1월 1일 이후 백화점, 쇼핑몰, 슈퍼, 마트 등에서의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다. 마찬가지로 음식배달 서비스업체와 각종 전시행사에선 비분해성 봉투를 쓸 수 없다. 전 지역에서 스티로폼을 포함한 발포 플라스틱 용기의 생산·판매를 하지 않는다.

해외의 탈플라스틱 정책 ③ 비분해성 일회용품은 아웃(OUT)! 호주



호주 환경부는 지난 4월 15일 개최한 의회에서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에 비닐봉지를 비롯해 분해성으로 잘못 표기된 플라스틱과 식기, 빨대, 폴리스타이렌 식품 용기·패키징 등이 해당한다.

또 지난 3월 남호주는 전역 최초로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빅토리아주, 서호주, 퀸즐랜드주 등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글로벌 1위의 대한민국, 결단에 나서다



그린피스가 발표한 통계에 따라 2017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쓴 플라스틱을 살펴보면 비닐봉지는 235억 개(46만 9,200t)이며, 1년 사용량으로 한반도를 70%가량 덮을 수 있다. 또, 33억 개(4만 5,900t)에 달하는 플라스틱 컵은 쌓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닿는다고 알려졌다. 페트병 49억 개(7만 1,400t)는 세우면 지구 10.6바퀴를 두른다. 아울러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으로, 글로벌 1·2위를 다투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2020년 12월 24일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확정·발표하고 관련 생활폐기물 감축에 발 벗고 나섰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 배출한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상향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플라스틱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해 일용 규모 이상 용기류 생산업체 대상으로 플라스틱 용기 생산 비율을 기존 47%에서 2025년 38%까지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음식 배달과 관련해 용기 두께 제한을 신설했다. 2022년 6월부터는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는데, 제품 가격 외에 일정한 금액을 내고 사용한 컵을 매장에서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다.

더불어 지난해 1월 이래, 판촉 물품은 제외하고 하나를 덩어리로 붙여주는 N+1 포장과 사은품·증정품을 함께 묶어 포장, 판매 제품의 3개 이하 묶음 포장 등이 금지했다. 단,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포장지나 테이프로 붙이는 형태는 허용한다. 이 밖에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쓰지 않던 일회용 비닐봉지와 소포백은 2030년 모든 업종에서 찾아볼 수 없다.

참고로, 아파트 단지에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를 2020년 12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왔고, 2022년까지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을 4층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 종이, 유리, 철 등에만 적용한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플라스틱에 신설해 2030년에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덧붙여 2019년 12월부터 음료·생수병에만 적용한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를 다른 제품까지 확대하며, 해외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은 2022년부터 전면 금지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함께하는 고고챌린지의 의미



여기에 하나 더 주목할만한 탈플라스틱 캠페인이 있으니, 환경부가 2021년 1월 4일부터 시작한 고고 릴레이 챌린지(이하 '고고 챌린지')다.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행동은 거부하고, (해야 할 한 가지는 실천하고)의 줄임말로, 이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SNS에서 천명하고, 다음 도전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 뜻깊은 의미를 지지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에선 최창원 원장과 적극 행정에 앞장선 베스트NH 수상자 원외이 같이 고고챌린지에 참여했다. 또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국가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환경적·도덕적 행정에 나서면서 탈플라스틱 환경 운동 역시 열심히 실천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김창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에게 배터너 터치해 모두를 위한 플라스틱 줄이기 동참을 부탁했다.

인용 출처

- 네이버캐스트, <플라스틱 - 20세기 기적의 소재>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71097&cid=58949&categoryId=58983>
- 네이버 화학백과, <플라스틱>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62736&cid=62802&categoryId=62802>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202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197451&cid=43667&categoryId=43667>
- 뉴스핌, "환경부-업계 "쓰는데 5분-분해는 5백년... 플라스틱 음식 용기 줄이자" 또 못야"
<https://www.newspim.com/index.php/news/view/20200529000564>
- 이투데이, "[탄소발자국 지우기 2050] 긴 여정의 시작"
<https://www.etoday.co.kr/news/view/2054042>
- 뉴스토마토, "'페트병이 옷으로 변신' ...석화롭게, '순환경제'로 돈 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26741>
- 리서치페이퍼, "생분해성 플라스틱, 일반 플라스틱과 '무엇이 다를까?'
<https://m.post.naver.com/view/postView.nhn?volumeNo=30560114&memberNo=39007078>
- 디지털타임스, "[친환경 플라스틱 시대] 탄소 배출 걱정 끝... 지구 지키는 '플라스틱 순환경제' 꽃핀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80902100432781001
- 식품음료신문, "세계 각국, 탈 플라스틱 정책 속속 채택... 지구스머더 가세"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080>
- 연합뉴스, "국내 플라스틱 컵 사용량 연간 33억개... 쌓으면 달까지 닿아"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3141100004>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고고 릴레이 챌린지>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16922&cid=43667&categoryId=43667>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식 페이스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도 탈플라스틱을 위한 약속, 고고챌린지에 동참합니다!"
<https://www.facebook.com/KoreaNH/posts/1599824483554664>

나를 더 스마트하게 해주는 Self 인재개발 퀴즈!



Quiz

국가인재원에서는 적극행정 대표 사례인
교육부·농림부가 협업한 '학생가정 농산물꾸러미 사업'
추진과정을 연극 공연으로 선보였습니다.
이 연극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발행하는 <NHI Live>
대표 정책부터 행사, 이슈, HRD 소식에 이르기까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최신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소식지입니다.



정답을 맞힌 7명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보내드려요!

응답기간

2021.9.1.(수)~2021.9.30.(목)

응답하기

< NHI Live 6월 퀴즈 당첨자 명단 >

김*은, 김*영, 민*경, 차*상, 박*미, 이*정, 황*혜 님
축하드립니다.